

세계양궁대회 자원봉사단 출범...성공 개최 힘 모은다

총 302명 외국어 통역 등 배치 활동 시작 전 안전관리 등 교육

세계 양궁인의 축제인 '광주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및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뒷받침할 자원봉사단이 출범했다. 세계양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도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시민 참여, 교통, 숙박, 안전 등 전 분야에 걸쳐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및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열렸다. 행사에는 조직위원장인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명진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최지현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한상득 광주시에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장, 이종호 광주시에장애인양궁협회장, 류미수 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최미선 리우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광주시립극단극단 축하공연, 자원봉사자 대표 위촉장 수여, 인사말 및 격려사, 결의문 낭

독, 성공 개최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퍼포먼스 행사에서는 9개의 화살이 과녁에 명중하는 모습을 통해 대회 성공 개최를 향한 자원봉사자들의 각오와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총 302명의 자원봉사자가 이번 대회기간 활동하게 된다. 자원봉사자들은 경기 운영, 현장 지원, 안전관리, 외국어 통역 등 다양한 분야에 배치돼 활동할 예정이다.

대회 개최에 앞서 세부 직무교육을 거쳐 현장에 투입된다. 이날 발대식 이후 자원봉사자 소양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진행된 소양교육은 대회 운영 개요, 자원봉사자 역할과 자세, 안전관리와 위기대응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한편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는 9월 5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로 나눠 진행되며, 광주국제양궁장 및 5·18민주광장에서 경기를 치른다.

두 대회에는 8월11일 기준 77개국 1200여명이 참가신청을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금타 공장 해체 작업 11일 오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2공장 정면동 건물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는 지난 5월 17일 화재가 발생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시, 청년창업기업 기술고도화자금 지원

8곳에 최대 3000만원...투자설명회·판로 개척 등 프로그램 연계

광주시에 지역 청년창업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5년 청년창업기업 기술고도화자금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청년창업기업 8곳에 기업당 최대 3000만원의 기술고도화자금을 지원한다.

유망 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기업을 발굴해 자금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하는 이 사업은 기술고도화와 사업 성장을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했다.

광주시는 지난해(4개 기업 지원)보다 지원 규모를 2배 늘렸다. 올해는 청년창업기업 총 43개 기업이 접수해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개최한 투자설명회(IR) 평가대회를 통해 창업기획자(AC) 및 투자사 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 사업성과 기술력, 투자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최종 8개 기업을 선정했다.

이들 기업에는 제품 고도화, 기술 시험 인증, 온·오프라인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성장자금을 기업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기업 맞춤형 사업도 지원한다.

광주시는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상담, 공개 투자설명회(IR) 행사, 판로 개척, 해외

마케팅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연계해 실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고해상도 하이브리드 광학렌즈 모듈 개발기업 '쥬앤디옵틱스' (오지현 대표), 아동발달 데이터관리 솔루션 개발기업 '쥬윈스' (최진영 대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솔루션 개발기업 '바이옴랩' (주양현 대표), 챗봇 변호사 및 변호사 추천 연계 플랫폼 개발기업 '쥬휴먼러브' (김수지 대표), 자동차코드 보안 솔루션 개발기업 '쥬플랫폼테크' (김성진 대표), 유희공간 활용 주저장 플랫폼 개발기업 '노바링크' (김형우 대표), 에코(ECO) 그린 스마트가로등 개발기업 '쥬에코파우더' (홍주표 대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핫플레이스 여행 플랫폼 개발기업 '쥬핫플' (조성진 대표) 등이다.

홍나순 창업진흥과장은 "창업기업이 지역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청년창업기업 기술고도화자금 지원사업에 선정됐던 '튜비콘', '주식회사 SPACE AI', '주식회사 스트뉴인터내셔널', '컨터트' 등 4개 기업은 제품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록, 해외 수출계약 체결, 매출액 2배 상승의 효과를 거뒀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시의회, '밀실족지 투표' 논란 예결특위 구성 축소

14일 회의서 예결위원들 결정

광주시의회가 '밀실 족지 투표' 담합 논란을 일으킨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위원 구성을 기존보다 1명 축소하기로 했다.

기존 위원들이 전원 사퇴함에 따라 9명의 위원을 모두 채우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광주시의장 몫을 제외하고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1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광주시의회는 간담회를 열고 차기 예결위원회를 8명으로 축소하는 안을 결정하고 14일 회의를 열어 예결위원들을 결정하기로 했다.

기존 사퇴한 예결위원 9명을 모두 다음 예결위원 후보에서 제외하고, 상임위원 2명씩 추천받아 예결위원을 구성하기로 했다.

총 23명의 위원중에 9명의 위원을 제외하면 14명이 남고 의장과 부의장 등을 제외하면 9명을 예결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다. 5명의 시의원중 2명이 사퇴를 했고 2명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해당행위 의혹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무더기로 광주시당의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상태라는 점에서 14일 예결위원을 결정하는 것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차기 예결위원에 선임된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민주당에서 징계를 받게 되면 재차 논란이 되고 최악의 경우 사퇴까지 고려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하지만 시의회는 다음주 을지훈련이 예정돼 있는데다, 시의회가 추진 중인 예결위 혁신안까지 고려하면 14일 차기 예결위원을 결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민주당 광주시당에서는 광주시의회 10명의 시의회 의원들의 해당행위 혐의에 대한 첫 윤리심판원(위원장 김중호)이 열렸다.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이 항상 제 식구 감싸기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윤리심판원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

전남관광재단, AI활용 관광콘텐츠 제작자 양성

19일까지 교육생 모집

전남도가 AI 프로그램을 활용한 전남 관광 콘텐츠 제작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관광재단은 오는 19일까지 '디지털 플랫폼 활용 관광 콘텐츠 제작 사업'에 따라 전남 관광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과정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 대상자는 전남지역 대학생과 관광업 종사자, 운영 예정자 등으로, 30명을 모집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커리큘럼으로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기본 교육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뉘는데 기본 과정(21~22일, 12시간)에서는 구글

의 Gemini(글,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활용법을 배우고 창업 아이디어 발굴, 관광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보는 교육이 진행된다.

심화 과정(27~29일, 20시간)은 기본 과정에서 발굴한 창업 아이디어를 AI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계획서 작성까지 발전시키고 SNS, 블로그, 영상 콘텐츠 등으로 제작하는 과정을 체험하게 된다.

참가비와 식비, 숙박비 등은 무료로 제공된다.

김영신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전남 관광산업을 성장시킬 미래 인재를 발굴하고 관광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들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 유기농 명인 모십니다

29일까지 후보자 모집

전남도가 '2025 유기농 명인' 후보자를 모집한다. 유기농 명인은 전남도가 지난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로, 식량·원예·특용작물, 축산, 기타 등 5개 분야에서 특장적인 유기농업 선도기술을 보유한 농업인을 발굴해 지정하고 있다. 현재 28명의 유기농 명인이 지정된 상태다.

3300㎡ 이상 규모로 유기식품 인증을 받은 뒤 7년 이상 보유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각 시·군이 추천한 후보자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하며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지정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그린 알로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2017 건강기능식품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 섭취량 중 총 다량성 함유량에 300mg 됩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받은 광고물입니다.